

## 비즈니스 트렌드 | 유통업계, 스타트업과 협업 전격음

# 자금-아이디어 접목...유통, '미래'와 손잡다

롯데마트·GS홈쇼핑 등 팔 걷어 아이디어 발굴해 상품화 지원 기업 미래 책임질 먹거리 투자 스타트업도 자본조달 쉬워 쌍수



롯데마트 '스타트업 박스' 품평회, GS홈쇼핑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수상자들, 유통업계가 아이디어 제품 및 미래 먹거리를 노리기 위해 스타트업 발굴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마트·GS홈쇼핑

유통업계가 스타트업과의 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 수준에 머물렀지만 요즘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만한 제품 아이디어를 스타트업을 통해 찾아내면서 기업 간 새로운 상생 사례가 되고 있다. 롯데유통사업부에서 대표적으로 최근 롯데마트가 '스타트업 박스'를 통해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를 상품화로 연결한 데 이어, 롯데홈쇼핑도 '디자인 이노베이션 랩'을 통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상

품을 발굴해 상품화·사업화를 지원 중이다. 또 롯데 유통사업부에서는 23일까지 '2018 글로벌 청년창업&스타트업 대전'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소비재를 제조·생산하는 만 7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유통채널 진출에 적합한 제품을 보유하면 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유통채널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품개선

비용을 비롯해 국내·외 판촉전 참가와 롯데 유통사업부 입점 교육 등 다양한 고체제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GS홈쇼핑의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도 눈에 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교육이 필요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창업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최종 8개팀이 선별돼 집중교육을 받고 시제품 제작 단계를 거쳤다.

뷰티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나서 뷰티테크 스타트업 공동 창업과정 '테크업플러스'를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스타트업 업체와 전략적 협업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다. 이처럼 유통업체들이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적극 나서는 것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만한 제품 아이디어 상품 발굴뿐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하이테크 기업을 발굴해 미래 먹거리 투자 효과까지 노리는 전략이 깔려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는 스타트업과 함께 유통 산업의 발전을 노린다"며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기업을 키워 나가기 위한 자본이나 인프라 등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정호 기자 jjay@donga.com

## 한눈으로 보는 경제 11일

코스피지수	2283.20	▲	+5.46
코스닥지수	820.23	▲	+4.07
日 닛케이 지수	2만2664.69	▲	+291.60
중상하이 종합	2664.80	▼	-4.69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23	▲	+0.005
환율 (원·달러)	1125.30	▼	-3.1
국내금값 (원/그램)	4만3311.36	▼	-28.45

## 시스피커 시장 달아오른다

구글, '구글홈' 등 2중 18일 국내 출시 카카오톡 등 국내업체들 신제품 맞붙



인공지능(AI) 스피커 시장이 새 국면에 접어들다. 구글이 '구글홈(사진)'을 국내 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제품을 내놓은 국내 기업들은 새 모델 출시 등으로 대응에 나섰다. 구글은 AI 스피커 '구글홈'과 '구글홈 미니'를 18일 국내 출시한다. 2016년 미국에 첫 선을 보인 지 2년 만이다. 가격은 각각 14만5000원, 5만9900원. 11일부터 구글스토어, 하이마트, 옥션 등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18일부터는 이마트, 지마켓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구글홈은 구글의 AI 서비스 '구글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한다. 사용자들은 음성으로 정보를 찾고, 음악을 들으며,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다중언어' 모드와 6명의 목소리를 인식해 개인화된 답변을 주는 '보이스 매치'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구글홈의 성패는 사용자 서비스의 확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를 위해 다양한 업체와 손을 잡았다. 음악 콘텐츠는 NHN벅스와 협력했고, 스마트홈 분야에선 LG전자 등의 사전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업체들은 구글홈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동성을 강화한 '카카오톡미니'를 출시했고, KT도 크기를 줄인 '기가지니 버디'를 내놨다. 네이버는 '프렌즈'에 캐릭터를 입혔고, SK텔레콤은 조명을 결합한 '누구앤들'을 선보였다. 국내 업체들은 또 쇼핑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늘리고, 편의점이나 호텔 등으로 사용처도 확대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가 '갤럭시홈' 출시를 준비하는 등 차세대 스마트 기기로 주목받는 AI스피커 시장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할 전망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현대차, '미고'에 투자...글로벌시장 적극 공략

(美 모빌리티서비스 전문업체)

미국 공유경제시장 진출 발판 미국-유럽-아시아 3대륙 연결 '모빌리티 비즈니스 벨트' 구축

현대자동차가 미국-유럽-아시아를 잇는 '모빌리티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의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업체 미고(Migo)와 상호협력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 공유경제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고는 2017년부터 모빌리티 다중통합(multi aggregation)이라는 신개념 차량 공유 서비스를 미국 최초로 선보인 업체다. 미고 앱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면 사용자는 다양한 차량 공유 업체들의 서비스 가격, 소요시간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현대차는 미고에 대한 전략 투자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는 역량과 기술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미고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초기에 이뤄졌고 자동차 업체로는 현대차가 유일해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미

국 모빌리티 시장은 470억 달러 규모지만, 2025년에는 2920억 달러 규모, 2030년에는 458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한편 미고와의 파트너십 결성으로 현대자동차는 미국과 유럽, 아태지역을 잇는 '모빌리티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하게 됐다.

유럽지역에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아이오닉EV를 활용한 카셰어링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아태지역에서는 인도 카셰어링 업체 레브(Revv)와 국내에서는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 전문 업체 메쉬코리아(Mesh Korea)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최대 카셰어링 업체 그랩(Grab), 중국에서는 라스트 마일 운송수단 배터리 공유 업체 임모터(Immotor), 호주에서는 P2P 카셰어링

미주	미국	미고	모빌리티 다중통합 서비스
유럽	네덜란드	*	아이오닉EV 활용 카셰어링
아태	한국	메쉬코리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플랫폼
	싱가폴	그랩	캐셰어링 서비스
	인도	레브	카셰어링 서비스
	중국	임모터	라스트 마일 운송수단 배터리 공유
	호주	캐릭스도어	P2P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 카넥스트도어(Car Next Door) 등에 선제적 투자를 실행해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망한 모빌리티 업체들을 발굴하고 협업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첨단 냉각사우나 장비 '크라이오' 열풍

이온인터내셔널 최단시간 50대 판매

크라이오 시스템 전문 기업 이온인터내셔널이 국내 최초이자 최단기간 50대 판매를 달성하며 크라이오테라피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랭요법 혹은 첨단 냉각 사우나 요법으로 알려진 크라이오(사진)는 한 대당 가격이 5500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다. 영하 110도~130도의 급속 냉동 환경에서 신체가 자가 회복 과정을 통해 피로회복, 플라젠 생성, 지방분해, 컨디



첨단 기법이다.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와 할리우드의 스타가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션 상승, 부상 회복 및 통증 완화를 이끌어내는 원리를 활용한

있으며, 국내에서는 배우이자 가수인 설리의 첨단 다이어트 기법으로도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이온인터내셔널 한정우 대표는 "첨단 헬스케어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정성과 신뢰도, AS 등 지속 관리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 교육·퍼즐

###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 미리 확인하는 TIP

###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마무리 요약·시험 후 합격 여부까지 '풀서비스'로 받아라!

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이 22일 시행된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 대비 2차 합격이 수월하다. 합격을 또한 2차가 현저히 높는데 시험 직후 최종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화제다.

바로 수험가에서 제공하는 '풀서비스'. 이는 수험생들이 시험 응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한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의미로 많은 학원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공인중개사·9급 공무원·주택관리사사를 비롯한 다양한 자격증 및 공무원 시험의 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비스에는 시험 합격을 위한 마무리 요약 자료부터 시험 이후 채점을 할 수 있는 가답안까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시험 당일에는 당락이 궁금할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직후 가답안 및 채점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험생들은 미리 가답안 알람 문자를



신청하면 가답안 오픈 즉시 문자로 링크를 받아볼 수 있다. 이 링크를 통해 자신이 작성한 정답을 입력하면 합격의 당락을 예측해볼 수 있는 첨단 서비스다. 또한 전국 수험생들의 시험 결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시험 결과 분석 통계 자료도 제공된다.

시험 전에라도 최종 마무리 공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막판 20점 상승 빈출 지문 100선', '최종 점검 파일널 모의고사' 등이 포함돼 있다.

에듀윌은 서울 대방·노원·인천 부평·부산 서면 등 전국 4곳에 주택관리사 지역학원을 운영 중이며 최근 대전 지역에도 지역학원을 그랜드 오픈했다. 이수진 기자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 스도쿠문제

	4		1		6		7	
5		6					1	9
	1			3			6	
3				9				7
		2	7		3	6		
6				2				3
	2			7			4	
4		8				7		5
	3		4		2		9	

		2				5			8
7							1		4
		8	7			9	6		
	1	4		6			5		
2			3		7				6
		7		9			2	4	
		2	6		3	9			
5			9						2
	9			8					6

### ■ 스도쿠정답

1	6	8	2	9	4	5	3	7	
9	2	7	6	1	8	9	4	5	3
9	4	8	7	5	6	2	1		
8	9	6	2	8	1	7	9		
4	1	9	8	5	7	2	6	8	
7	8	2	1	6	9	4	5	3	
8	9	4	5	6	7	1	2		
6	8	1	7	4	2	9	8	5	
2	7	5	9	8	1	3	4	6	
7	9	4	2	8	5	1	6	8	
2	8	7	6	1	9	5	8	3	
9	6	2	7	9	4	8	3	1	
8	7	9	8	2	4	1	6		
1	2	9	6	8	7	4	5	3	
4	9	8	1	2	8	6	9	7	
6	8	7	9	4	5	1	2	3	